



고창 농어촌공, '나사로의 집' 등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아 고창군 관내 '나사로의 집' 등을 찾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관내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 위문했다.

고창지사는 '나사로의 집' 등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가 담긴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 소외된 계층 등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나사로의 집(목사 임희택)' 등 시설관계자는 "전달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시설 장애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고창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도움의 손길을 받기 힘든,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소외·취약계층을 찾아 이웃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승현 남원소방서장, 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김승현 서장이 지난 21일, 설 연휴 기간의 관내 응급의료기관 이송 체계를 점검하고, 최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감사의 전하기 위해 남원의료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의료진에게 "무엇보다 시민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고 적합한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 도입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승현 서장은 "소방, 보건, 의료기관이 협력해 신뢰받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소방서, 설 연휴 대비 비상 응급의료 간담회

김제소방서는 지난 20일 김제 우석병원에 방문하여 설 연휴 대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비상응급 대응 주간(1. 22 ~ 2. 5.)을 맞아 설 연휴기간 119 구급대의 환자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업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적극 참여 요청 △비상응급 대응 주간 관련 사항 전파 △응급환자 대응 관련 실무자 핫라인 구축 등 이었다.

김제소방서 및 우석병원 관계자는 "설 명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임실소방서장, 설 명절 대비 대형공장 현장방문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실소방서 관할 내 일진제강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화재나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이다. 이번 컨설팅은 대형공장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예방을 위해 공장 내부의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도 내용은 △피난 경로 확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 예방 담배 및 초기 소화요령 지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등이다.

김상곤 서장은 "중점관리대상의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인분들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훈영 기자

“대학교육 질 높이고, 자율성 확대 초점”

전북대 양오봉 총장, 제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선출… 3월 1일부터 1년 임기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중 136개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웨스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대학 총장들의 추대를 받아 양오봉 총장이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양 총장은 3월 1일부터 1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부회장은 이기정 한양대 총장과 임경



호 국립공주대 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양오봉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위기 등 대학사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대교협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교협 설립 목적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대학 총장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고등교육 예산 확보와 RTO 체계 안착 등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대학 재정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은성기자

정읍시 공직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지원 2000만원 전달

정읍시 공직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모금 기부 전달식이 지난 21일 진행됐다. 시 공직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특별모금에 나서며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모금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리적 위로를 전하고 재난 상황에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은 "정읍시 공직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참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특별모금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읍 공직자들의 이번 특별모금 활동은 공직 사회에 긍정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직자의 역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2024 사랑나눔 1인 1계좌 갖기 기부자에 서한문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4년 사랑나눔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참여한 기부자 240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 1계좌 갖기사업 중 착한 가게 참여 확대가 주요 과제였으며 1일 1가구 방문과 연계해 현재 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월 정기기부로 총 1억2900여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

2024년 후원금으로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사랑 듬뿍 찬찬한 지원 374회 / 1,000만원 △여름맞이 삼계탕 지원 60가구 / 100만원 △맞춤형 물품 지원 46가구/500만원



(서랍장, 유모차, 전기장판, 이불, 커피, 난방유류, 김장김치) 지원,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왔다.

이에 2025년에도 특화사업으로 도통동 사랑나눔 1인 1계좌 갖기, 사랑 듬뿍 찬찬한(饑饉撲)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 여름맞이 삼계탕 지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소선자 동장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 후원자 여러분의 나눔은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이라며, 사랑의 마음을 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노암동 등 곳곳 사랑나눔 잇따라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이날 24일까지 가정방문을 통해 1인 1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안부 및 난방 상태 등 안전 점검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후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며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차미화 노암동장은 "모든 동민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보절면(면장 김대기)에서는 22일 면 농업경영인회(회장 이창근)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리면 20박스(한가씩 20만원)를 기부했으며, 김대기 면장은 "농업경영인회의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손길에 감사드리며, 면에서도 취약가구를 꼼꼼히 살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남부사무소(소장 이지영)에서는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안동준)에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쌀을 기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쌀 4백 포대 지정 기탁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무주양수발전소가 지난 22일 무주를 나르미시(남단에서 쌀 4백 포대(1포대 10kg)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따르면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 2백 포대, 무주장애인노인복지관에 1백 포대, 발전소 주변 마을 경로당(무주읍·적상면 15곳)에 1백 포대를 지정·기탁했다.

양해연 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주읍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에 쌀을 보내게 됐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무주양수발전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는 1995년도에 준공된 순양수시발전소로 전력 홍보관에는 연간 30여만 명이 찾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장기 전주교육장, 2036 올림픽 유치 챌린지 동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김장기 교육장이 지난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에 따르면 김장기 교육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지목을 받아 이날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대해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김 교육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들을 우리 학생들과 도민들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경기장 위 감동의 순간을 현장 가까이에서 느낀 경험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걸음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심과 지지로 더 활기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김 교육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김왕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완성 전북교육청교육연구원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추영근 장수교육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챌린지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근 교육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추영근 교육장은 최후식 장수군수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전북 유치를 위한 열정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산동면 발전협, 마을 경로당에 성품 전달

남원시 산동면 관계자는 면 발전협의회(회장 고재운)에서 각 마을 경로당에 생필품 등 2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기관단체장협의회 자율방범대에서도 각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전달 성품들은 면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화합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재운 회장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산동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현물을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세계복음선교협회, 남원 향교동에 겨울 이불 전달

남원시 향교동 관계자는 관내 이웃들을 위해 지난 15일, 세계복음선교협회(목사 최충)에서 겨울 극세사 이불(100만 원 상당)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선교협회는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이 남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듬으며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권혜정 동장은 "명절 나눔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하느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감사드리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외롭지 않은 훈훈한 향교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